Tuesday Customer 2009-11-03 no.502

종이책 임상보고서

한국의 책쟁이들
임종업 | 청림출판

베스트셀러 30년을 결산하다

교보문고는 1981년에 문을 열었다. 그래서 1981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의 출판 흐름을 볼 수 있는 베스트셀러 목록으로는 교보문고의 데이터가 유일하다. 나는 그 목록으로 지금 한 포털사이트에 '베스트셀러 30년'을 연재 중이다. 2010년은 교보문고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에 맞춰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향수를 안겨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재는 각각의 해를 개관하고 그 해의 문학베스트셀러 10종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해주는 작업이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 1980년대 초반을 정리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더구나 베스트셀러에 대한 지식인들의 천대로 관련 기록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결국 그 책을 직접 찾아 읽어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오래된 책들의 향수

처음에는 집을 다 뒤져서 해당되는 책을 골랐다. 그러나 나온 것은 고작 20여 권이 채 되지 않았다. 시골집으로 목록을 보내 찾아보라 했더니 달랑 두 권이 나왔다. 그리고 헌 책방 두 곳을 뒤져 수십 권을 사왔다. 다시 온라인 헌책방이 생각나 그곳으로 주문을 하고서야 대부분의 책을 구할 수 있었다. 책을 구하지 못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헌 책방이 이렇게 요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출판 영업현장에서 15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터라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책들의 대부분을 접해보기는 했다. 그러나 길게는 30년 가까이 지난 책도 있으니 내용도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 거의 대부분 새로 읽어야 했다. 막상 책을 집어서 다시 읽으니 책에 얽힌 기억들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고, 책을 읽으며 되새긴 기억과 약간의 자료를 참고하여 쓴 글들로 연재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책을 읽지 않고 나와 남들의 어설픈 기록에만 의존해 글을 쓴다면 매우 무미건조한 보고서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 이후 e-콘텐츠나 전자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보관과 저장과 검색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간결하고 명쾌하면서도 그 자체로 완성도가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치돼 있으며, 차례나 찾아보기뿐만 아니라 독자를 의식한 판면 구성으로 행간과 여백까지 읽어낼 수 있는 종이책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의 장점을 결코 떨쳐낼 수 없었다. 아니 만끽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지난 500년간 호흡을 맞춰온 종이책의 인터페이스가 갖는 친숙함과 편리함을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종이책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의 책쟁이들**』은 종이책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다. 달리 말하면 종이책의 인터페이스에 빠져 삶의 중요한 몇 가지는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어렵게 골라 모아놓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 즐거움이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참맛을 알기

어려운 지혜다. 책이 단순한 페티시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수많은 상상을 자극하고 꿈을 꾸게 만드는 미디어라는 것을 뼈 속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다.

책에서는 5부에 걸쳐 책으로 업을 꿈꾸거나 가꿔가는 책벌레 28명을 소개한다. 추억의 만화를 찾아 헌 책방을 뒤지다가 만화편집자가 된 신세대 만화 마니아 박지수, 외국 바이어와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든 일이 술술 풀리더라는 '밑줄 긋는 여자' 성수선, SF에 관한 한 국내 제1인자가 된 박상준, 잘 나가던 기업 CEO 자리를 내던지고 빵 굽는 아내와 함께 북카페를 운영하며 책도 쓰는 김종헌, 시집과 국문학 책을 각각 3,000여 권씩 모아놓은 퇴직 국어교사 이석범 등을 다룬 1부 '꿈꾸는 자들의 책'만 읽어도 왜 사람들이 책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중독되는지를 알 수 있다.

사람 자체가 책이 된 사람들

2부에서 5부까지에는 이윤기, 김병익, 김원우, 고종석, 스티븐 킹, 딘 쿤츠 등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섭렵하다가 『전작주의자의 꿈』이라는 책을 펴내며 열혈독자에서 저자로 변신한 조희봉, 자궁과 월경에서 현대사를 압축해 읽어낼 수 있다면서 사람 책과 종이 책을 동시에 읽으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을 펴낸 한의사 이유명호, 책을 흐르거나 잠시 머무는 존재로 생각하고 책의 임자를 찾아주는 데 전념한 책 중간상 김창기, 영화 2,000편을 봤지만 『돈키호테』 한 편만 못하다는 것을 진즉에 깨닫고 2만여 권의 장서를 참고해 개화기 복식 이입사를 쓰고 있는 박세록, 새 책 팔아 헌책을 죽어라고 사 모아 책 박물관을 열었다가 결국 빚잔치를 벌인 여승구, 독서동아리에서 소중한 아내를 얻은 목재상 김태석 등 정말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8명은 책벌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책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다. 만화나 SF, 국문학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만을 열심히 사 모으는 사람, 한 작가의 전작을 죽어라고 파는 사람, 그저 아무 책이나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등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이퍼텍스트적 독서를 즐긴다는 공통점은 어쩔 수 없었다.

책 세계의 임상보고서

디지털 시대에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잉정보는 사실상 정보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제 정보의 진정한 맛을 깨달으려면 책이라는 사물이 갖는 물성과 촉감 세계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최적 경험의 진정한 의미를 한 권의 책을 통해 깨우칠 수 있다. 책은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매체가 아니다. 책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읽으며 온몸으로 느끼는 다중감각 양식에 가장 알맞은 매체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28명의 책벌레들은 모두 그 맛을 못 잊기에 책 세계에서 한 순간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책벌레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종이책이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공고히 하는 책 세계에 대한 진실한 임상보고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인 임종업 기자의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자신이 책벌레가 아니라면 이런 기획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그의 서재에서 그와 함께 책 세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 또한 책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 소장)